

'강한경제 전주' 위한 현장행정 '동분서주'

우범기 전주시장, 산업경제·문화 현장 찾아 사업계획 점검·주력산업 육성·신산업 발굴 등 모색

우범기 전주시장이 '강한경제 전주'의 원동력을 세우기 위해 전주시 '산업경제 및 문화 현장' 등을 찾아 2023년 새해 현장 방문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우 시장은, 효성첨단소재(주),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식산업센터 건립 현장,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동고산성, 한국전통문화전당 등을 각각 방문해 주요 사업계획 등을 점검하고 나섰다.

우 시장은 현장방문에 따른 자리에서 기업지원에 관한 규제 완화 계획을 점검하고, 지식산업센터 사업시행자의 건립 및 운영계획 등을 청취했다.

팔복동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용지가 부족한 전주 산단 내 민간 지식산업센터의 건립을 유도해 산업시설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원·편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대표적인 기업지원 현장이다.

우 시장은 특히 보다 많은 기업이 유치돼 전주 경제를 이끌 수 있도록 기업지원 부서에 더욱 강력한 규제 완화를 지시하고, 사업시행자에게는 지식산업센터의 안전한 공사 추진과 속도감 있는 건립 당부로 '강한경제 전주' 행보를 잇고 있다.

여기에 우 시장은, 전북지역의 경제 분야를 총괄 지원하는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서 2023년 경제산업분야 주요



우범기 전주시장이 '강한경제 전주'의 원동력을 세우기 위해 전주시 '산업경제 및 문화 현장' 등을 찾아 2023년 새해 현장 방문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고 '주력산업 육성, 신산업 발굴, 기업유치, 일자리 확대' 등 강한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우 시장은 동고산성에서 핵심 공약사업인 '왕의 공원 프로젝트'의 사업계획을 보고 받았다.

왕의 공원은 후백제의 고도이자 조선 왕실의 본향인 전주의 특

발한 역사문화 자산을 활용해 문화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산업과 연계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대규모 계획이다.

시는 왕의 공원 프로젝트가 지난해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역사문화권 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통한 왕의 공원 프로젝트가 지난해 마련됐기에, 역사도시 전주의 관광 인프라를 구축 사업에서 속도감 있

는 추진이 예정되고 있다.

또 우 시장은 대한민국과 전주의 전통문화의 대중화·산업과 세계화를 위한 중심지 역할을 수행 중인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2023년 문화체육관광분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기도 했다.

시는 올해 문화체육관광분야 주요 사업으로 '한옥마을 국제관광안내소 건립, 서부권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혁신도시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예술공간, 완산병커 1973 조성' 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전주시립미술관 건립, 한국문화원형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 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 K-Film 제작기반, 영화산업 허브 구축, 전주 실내체육관 건립, 전주 컬링경기장 건립' 등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강한 경제는 주력산업의 육성과 기업 투자 유치가 핵심인 만큼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산업용지를 확보해나갈 것이다. 동시에 후백제부터 조선왕조에 이르기까지 전주의 다양한 역사문화 자산을 기반으로 전통과 역사, 현대가 조화된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시민과 함께 전주의 미래 바꾸는 덕진'

덕진구, 현장·복지·안전·녹색 행정 4대 추진 방향 제시

최병집 덕진구청장은 한발 빠른 현장행정을 보이며 시민들 생활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덕진구는 앞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정책과 생활 속 안전관리, 녹색 생활 실천 유도 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최병집 덕진구청장은 26일 신년 브리핑을 통해 '시민과 함께 전주의 미래를 바꾸는 덕진'이라는 비전 아래 2023년도 구정 운영 4대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4대 기본방향은 '시민과 공감하는 소통중심 현장 행정, 시민이 존중받는 따뜻한 복지행정, 시민의 든든한 울타리 안전 행정, 시민 곁으로 다가가는 녹색 행정' 등이 담겨져 있다.

시민과 공감하는 소통중심 현장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발로 뛰고 보고 듣는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전자매체를 활용한 민원서비스 추진 등 시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에 집중할 방침이다.

여기에 구는 따뜻한 복지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맞춤형 복지 제공에 힘쓰고, 틈새계층 및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지원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민·관 복지 거버

넌스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 자원을 복지대상자와 연계함으로써 소외 없는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구는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조성에도 공을 들이기로 했다.

재난·재해 관리 대상시설물 안전 점검 및 사전 조치를 강화하고,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위생등급제 및 모범음식점 관리, 식중독 예방 컨설팅 및 점검 등을 통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음식문화 조성에도 집중한다.

구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녹색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녹색 쉼터' 제공을 위한 도시공원 및 하천 정비, 환경오염 사전 예방을 위한 환경오염 배출업소 통합 지도·점검, 생활폐기물 무단배출 취약시간 집중 단속' 등을 지속 추진키로 했다.

최병집 덕진구청장은 "전주시 행정의 온기가 더 많이 퍼지고 행정의 손길이 구석구석 미칠 수 있도록 발로 뛰는 행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며 "주민 모두가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4대 기본방향에 맞춰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계속된 한파 소방시설 동파 주의 당부

덕진소방서, 동파될 경우 화재 발생 초기 대응 실패 이어질 수 있어

전주덕진소방서는 최근 기록적인 한파로 인해 소방시설 동파를 대비한 각 관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현철 덕진소방서장은 냉동고 한파 지속으로 인해 소방시설이 동파될 경우 화재 발생 초기 대응 실패로 이어질 수 있어 다수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소방시설에 대한 관리 점검을 지시했다.

특히 옥내소화전과 스프링클러 같은 소방시설은 물을 사용해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시설로 한파가 지속될 경우 동파로 인한 파손이 우려된다. 여기에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경보시설 역시 낮은 기온에서 오작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철저한 유지 관리가 요구된다.

소방시설 관리 방법으로는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등 배관 노출로 동파 우려가 있는 설비는 배관 보온 조



치 △지상층에 있는 펌프실 보온 조치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의 정기적인 작동점검을 확인 및 이상 발견 시 즉시 수리 등이 있다.

김현철 덕진소방서장은 "겨울철 낮은 기온으로 인해 소방시설의 동파 방지를 위한 유지관리가 중요하다. 모두가 안전한 겨울철을 보낼 수 있도록 소방시설 동파 방지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구분	전체	O형	A형	B형	AB형
보유량	662	122	171	320	49
보유일수	3.5일분	2.4일분	2.5일분	6.8일분	2.3일분

전북지역 혈액 보유현황 (26일 00시 기준)

'혈액수급 비상' 전국 3.8일분·전북 3.5일분 보유

혈액보유량 주의 단계... 도민 헌혈 참여 절실

26일 0시 기준 전국 혈액보유량은 평균 3.8일분으로 혈액보유량이 관심단계를 넘어 주의단계로 접어들었다.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의 혈액보유량은 3.5일분으로, 적정혈액보유량(5.0일분 이상)에 크게 못미치는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연말연시와 설연휴기간, 가상약화, 학생들의 방학에 따른 것으로 헌혈자 확보를 위해 각종 프로모션과 문자 홍보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헌혈참여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위기상황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헌혈자 감소 추세가 지속

되면 의료기관이 필요로하는 혈액의 충분한 혈액공급이 어려워 응급상황 발생시 수술 및 수혈이 제한되거나 미뤄질 수도 있다.

전북혈액원은 혈액수급 안정을 위해 전라북도 및 시군청에 협조방안 및 홍보대책 등을 전달하고, 각 공공기관, 군부대, 기업체 등의 적극적인 단체헌혈 참여를 요청하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다.

혈액부족 상황이 3월초까지 예상됨에 따라 도민들의 헌혈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김영태 기자

전주형 미래농업 기반 조성 협력

우범기 시장, 농촌진흥청 산하 혁신도시 이전기관 방문 방안 논의

'강한 경제 전주'를 최우선 과제로 정한 우범기 전주시장은 미래 지역 농업발전을 위해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 농촌진흥청 산하기관 등을 차례로 방문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26일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인 이돈승 국립농업과학원장, 서효원 국립식량과학원장, 이지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박범영 국립축산과학원장을 차례로 만나 전주 시 농업발전에 대한 논의를 했다.

이날 우 시장의 현장 방문은 전주 대변혁을 위한 밑그림을 구체화하기 위한 현장 행정의 연장선상이다.

우 시장의 현장 행정은 전주형 미래농업 혁신 기반 조성을 위한 기관간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또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정주여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갖고, 향후 전주형 미래농업 혁신 기반 조성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우 시장은 전주시정으로부터 취임한 이후 꾸준히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으며, 전주시 이전 공공기관과 유관기관, 기업 등을 방문해 전주시와의 꾸준한 협력을 당부해오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의 위대한 도약을 위해 더 힘차고, 강하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함께 힘을 모을 다양한 기관과도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주요 협력 사업 발굴을 위한 기관 방문과 유관기관 간담회 등을 꾸준히 가지면서 전주 발전을 위한 소통을 이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